

이덕일의 '역사의 창'



일본 신사(神社) 단상

일본 여행을 하다 보면 신사(神社)를 자주 목도하게 된다. 신사란 일본의 토착 종교인 신도(神道)의 사찰이다. 일본 전역에 약 8만5000개 정도가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신사까지 포함하면 10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 신사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신사의 제사 대상만큼 폭넓은 것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것이다. 제사 대상에는 산악·하천·호수 등의 자연 물이 있는가 하면 원숭이·고래 같은 동물들도 있고, 불교·도교·음양도(陰陽道) 등 외래의 신들도 있다. 심지어 성기(性器)도 제사 대상인데, 자손의 번영을 비는 의미라고 한다.

아마도 신사(神社)를 자주 목도하게 된다. 신사란 일본의 토착 종교인 신도(神道)의 사찰이다. 일본 전역에 약 8만5000개 정도가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신사까지 포함하면 10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 신사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신사의 제사 대상만큼 폭넓은 것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것이다. 제사 대상에는 산악·하천·호수 등의 자연 물이 있는가 하면 원숭이·고래 같은 동물들도 있고, 불교·도교·음양도(陰陽道) 등 외래의 신들도 있다. 심지어 성기(性器)도 제사 대상인데, 자손의 번영을 비는 의미라고 한다.

그러나 신사에서 제사 지내는 대상이 '800만'이라는 말이 과장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신도는 세상 모든 만물에 영적 능력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Animism)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신도도 이런 신앙체계만 유지한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소박한 신앙체계일 수 있다.

그러나 신사가 산 사관이나 죽은 사람을 제사 대상으로 삼을 때 문제가 되어

왔다. 그것도 일본 제국주의와 결합되면서 큰 문제가 되어 왔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강요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소학교부터 대학까지 각급 학교는 물론 신부·목사·승려들에게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이때의 신사참배는 일왕을 살아 있는 현인신(現人神)으로 떠받들면서 참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많은 반발을 낳았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을 갖고 있는 개신교가 격렬하게 반발한 것은 당연했다. 지금과는 달리 일제강점기의 개신교는 체제 저항 의식이 강한 민족종교였는데, 신사참배 거부 운동 때 2000여 명이 투옥되고 50여 명이 순교했다.

신사참배 강요가 일왕을 현인신으로 떠받들면서 문제가 되었다면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는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내면서 문제가 된 경우이다. 한국의 서원들처럼 제명된 유학자들을 제사 지냈던 것처럼 문제가 될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에서 제사하는 대상들의 면면을 알게 되면 일제의 침략에 고통을 겪었던 동아시아 각 국민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가 추측되어 일어났던 서남(西南)전쟁처럼 일본 내전에서 전사한 인물들을 제사하는 것은 뭐라고 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대만 침략이나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다가 죽은 일본군을 제사 지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청산리전투 때 전사한 일본군들까지도 야스쿠니 신사의 제사 대상이다.

청일전쟁은 물론 1931년의 만주 침략과 1937년의 중국 침략 때 전사한 일본군들을 제사 지내니 중국이 반감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일본군들을 제사 지내는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제사하는 246만명 중 제2차세계대전 때 전사한 인물이 213만여 명이고, 중일전쟁 때 전사한 이는 19만여 명이다. 이 둘을 합치면 232만여 명으로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군부에 강제 끌려갔던 일반 사병들뿐 아니라 임금이나 이해할 구석이 없다. 패전 후 A급 전범으로 사형당한 전쟁광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와 남침학살 주범 마쓰이 이와누(松井石根)까지 제사를 지내니 동아시아에서 일제 침략 전쟁은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 사건이 되는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도쿄(東京) 한가운데인 지요다구(千代田區)의 왕궁 북쪽에 있는데, 총 면적 9만 3000여㎡로 일본 내 신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만약 독일 베를린 한복판에서 히틀러나 히틀러 혹은 괴뢰 등을 제사 지내는 사실이 있고, 여기에 독일 대통령이나 수상 또는 각료들이 참배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당연히 프랑스·영국·폴란드 등은 국교를 단절할 것이다.

집안에 세 명의 A급 전범이 있는 아베가 수상이 되면서 일본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며 과거에 그랬듯이 가장 먼저 침략할 수 있는 대상이 한국이다. 국내에 일본 극우파 자금이 대거 들어와 진행하고 있는 데도 서로 쉬쉬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1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이 모자라서 나라를 빼앗겼던 것이 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과거는 반복될 수 있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의료칼럼



유 태 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가정의학과장

금연, 작심삼일 안 되려면

성이 높다. 무엇보다 여성 흡연은 기형아 출산 확률을 높이고 자궁 및 임신의 가능성 또한 2배 이상 증가시키므로 보다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한다. 청소년 흡연 또한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10% 정도로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50%에 가까운 담뱃값 인상이 눈에 띄는 금연효과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흡연자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흡연은 뇌가 니코틴에 중독된 '질병'이다. 담배를 피우면 뇌의 니코틴수용체에 니코틴이 달라붙고, 이에 신경이 연결된 전두엽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것. '행복물질'이라고 알려진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 지속해서 담배를 가까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연은 의지나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치료'해야 하는 영역'이다. 더욱이 흡연은 그 자체로 질병일 뿐만 아니라, 몸의 거의 모든 기관에 잠재적 질병을 심어놓

게 해당하는 양. 1년이면 48개, 즉 10년을 피웠으면 약 480개의 검은공에 해당하는 타르를 씹어먹은 것과 같다. 아울러 이는 생수 500ml 통해 타르를 가득 채워 마신 셈이기도 하다.

이처럼 담배는 끊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질병을 유발하지만, 의지만 믿고 끊기만 쉽지는 않다. 하지만 금연한 사람이라고 해도 단 한 번의 시도도 성공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들도 수많은 금연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자기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 금연이라는 관문에 도달한 것. 따라서 금연에는 몇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실패한 이유를 분석, 재도전하는 '권토중래'(捲土重來)의 자세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방법은 흡연이 질병이라는 인식을 갖고 전문 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파거스트름 테스트를 시행, 흡연자의 흡연량, 기간, 시간, 태도, 금연 경력 등을 측정하는 '니코틴 의존도 평가'를 한다. 담배에 대한 중독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다.

한번 올해부터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도 있다.

기 고



오 영 상  
전남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

예술하기 좋은 전남 함께 만들자

보다 높은 수치이며 전국 17개 광역시·도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부족하다고 할 수 없는 인프라다.

그렇다면 전남에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닐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척박'(??)하게만 느껴지는 전남을 찾아와 이곳에서 활동을 하며 예술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예술인들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문화 예술의 중심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곳 서울, 그것도 국립극단에서 '잘나가는 배우'로 왕성한 연극 활동을 펼쳤던 이상지 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2010년 출연한 전남 구례로 귀농해 마을사람들과 극단을 만들고 지역의 마을 커뮤니티 연극을 실천하고 있다.

"배우 이상지"는 2000년 '백산예술대상 연극대상', 2004년 '히서연극상 올해의 연극인상' 등을 수상했으며 국립극단 주요 작품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많은 팬을 확보했던 배우다.

유명배우의 길을 접고 이상지씨가 구례 지역민들과 함께 만든 극단 '마을'은 주부, 농민, 교사, 학생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극단이지만 돌풍은 거셌다.

공연 때마다 구례 섬진아트홀 객석 300석을 모두 채우고 통로까지 관객이 앉을

이상 지원사업에 대한 단체 자체부담금 비율을 기존 15%에서 10%으로 하향조정했다.

지역 예술인들의 권익에 따라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전남이 아닌 타지역에 주소와 둔고 있는 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지역협력형사업의 단위사업에 포함된 예술축제지원과 아마추어생활예술 지원사업은 폐지됐으며,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은 공연장상주단체사업 뿐만 아니라 시각예술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전문공연단체 중심으로 추진됐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공공 공연장 중심으로 추진된다.

예술인들이 전남을 찾고 전남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 전남의 문화예술은 꽃 필 수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뉴욕이 세계문화의 중심지가 된 것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예술가들이 예술하기 좋은 전남, 도민이 문화를 즐기는 매력 넘치는 전남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6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재범률 낮추는 아동보호시설 설립 시급하다

탈선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다. 잘못했다라도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치료 활동을 병행한다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에는 이 같은 아동보호치료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 광주시와 벌원은 3년 전부터 설립을 추진해 왔지만 예산난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위기의 청소년 보호에 큰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불량행위를 다루는 '소년법'의 처벌은 집에서 부모의 위탁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가장 가벼운 1호이다. 장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10호는 가장 무겁다.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지내게 하는 6호 처벌은 부모의 보호가 어렵거나 소년원에 가기에는 범죄가 무겁지 않은 경우에 내려진다. 외출·외박이 가능한 보호시설에서 교과수업도 진행되며 운동·음악·문화 활동, 심리치료, 직업훈련도 함께할 수 있어 높은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광주·전남에는 6호 처벌을 이행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처벌을 내리려면 치료소가 있는 전북로 송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재범률마저 높아진다면 문제가. 청소년 비행 특성상 억압이 심하거나 또 다른 수법을 배우면 재범률이 높아질 개연성이 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나해 광주 가정법원이 처리한 소년보호 사건 2218건 중 6호 처벌은 2.93%인 65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미비가 큰 원인이다. 한 명의 미흡한 청소년이라도 올바른 길로 바꿔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하루 빨리 보호치료시설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에 거는 기대

광주시가 오는 2030년까지 시민 중심의 '문화주권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기점으로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다.

광주문화재단은 엇그제 열린 창립 5주년 기념식에서 이 같은 비전을 담은 '광주 문화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2030'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문화로 품은 새로운 광주, 예술로 아름다운 시민'을 비전으로 문화예술의 가치를 현실화하고 시민의 삶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의미를 담았다. 문화와 예술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저력을 현실화해 도시를 살찌우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목표로는 미적정 문화교류 도시, 품격 있는 문화 예술 도시, 시민중심 문화주권 도시를 제시했다. 미래형 문화교류 도시를 위해 ▲도시 간 문화연대 강화 ▲문화창조 사업 발굴 및 육성 ▲문화관광 및 장

조공간 확대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확산 ▲창조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광주를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개방·융합·창조를 주요 가치로 창조적 문화공간을 확대한다.

한 도시의 문화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는 다양하다. 풍부한 인프라, 예술가의 창작 활동, 수준 높은 콘텐츠는 문화도시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지표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생태계가 빈약하다면 '주인 없는' 문화도시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개관 1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제 아무리 훌륭한 시설과 콘텐츠가 넘쳐나도 시민들이 이를 향유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문화도시의 주역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세부적인 계획 마련과 예산 지원 등으로 이번 로드맵이 갖춰질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전두환 정권 당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란 제목의 책을 공개된 장소에서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금서였던만큼 가지고 있다 걸리면 불손서적 소지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던 시절이었다.

1986년 대학 1학년 때 이념 학술 서클에서 처음 접하면서 5·18의 진상을 제대로 알게 됐다. 부록에 실린 사망자들의 이름과 직업을 보고선 살육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다가와 차를 뿔었단 기억이 생생하다.

학생들은 책 제목을 줄여 '~넘어 ~넘어'라고 불렀다. 1980

5월 18 당시 10일간의 기록을 담은 이 책은 1985년 5월 20일 서울에 있는 풀빛출판사에서 발간됐다. 200쪽에 원고지 700장 분량으로, 초판은 디자인도 없는 하얀 백지의 표지로 빼뽀뽀했다.

2쇄부터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編)·황석영 기록'으로 발간돼 소설가 황석영이 쓴 것으로 시중에 알려지게 됐다. 나중에 확인된 일이지만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된 대학생과 사회운동가 10명이 1981년부터 4년간 모은 자료가 토대가 됐다. 이 자료를 황석영이 두 달 동안 다듬어 이름을 올리

게 됐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황석영을 내세워 공안정국의 칼날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넘어 넘어" 출간으로 풀빛출판사 나병식 사장은 구속됐고 황석영은 미국으로 사실상 강제 출국됐다. 출판사 측은 지난해 12월 품질될 때까지 50~100만 권이 인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1년 만에 이 책의 개정판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이다. (사)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오는 5월 발간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수현 황석영이 그

대로 맡고, 1985년 책 집필에 참여했던 언론인 출신 이재의 씨 등이 이번엔 비로소 실명을 드러낸다.

개정판에는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과 학운동 봉고차 총격 사건, 5월 24일 송암동 주민 학살 사건의 정확한 내용 등 새로운 진실이 담겼다. 5·18을 경험한 시민 1000명의 구술 자료가 있어 가능했다. 진정한 민초들의 기록인 개정판이 지하 베스트셀러에서 나와 31년 만에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